

‘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’는 조심하세요.

남의 ID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에서 부정하게 구매한 상품을 아파트 빈방에 부치는 등 유학생 등을 수령책으로 끌어들이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

SNS에는 ‘자택에서 짐을 받고 지정된 곳에 전송하십시오.’ ‘빈방에서 짐을 수령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’ 등의 수상한 아르바이트는 위험성이 높습니다.



범죄 수법에 대해서

- 범죄 조직이 부정 액세스 등으로 입수한 남의 ID나 비밀번호를 악용해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상품을
 - 유학생 등에게 받게 하고 범인에게 전송시킨다
 - 빈방을 배송처로 지정해 유학생 등에게 받게 한다
 는 수법을 쓰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빈방에 허가없이 침입하거나 짐을 받는 것은 범죄이니 처벌 대상이 됩니다.

짐을 받은 경우

절도죄 **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**
 (※범행 형태에 따라 죄명이 다릅니다.)

빈방에 침입한 경우

주거침입죄 **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**

‘짐을 받기만 하는 쉬운 아르바이트’는 조심하세요!!

지바현경찰본부 국제수사과

